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공동유치 전략기술로 선정 경제적 파급효과·K반도체 핵심 요충지 공급망 안정화 기대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위한 전략기술로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을 선정, 27일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후보지인 첨단 1지구와 3지구 일대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애플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도는 설명했다.

계획서에는 지역 산업 기반시설과 입주기관 현황, 기회요인, 특화단지 육성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등을 담았다.

현 정부 대선포약, 국내 유일의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와 RE100 기반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전) 실현 최적지, 신속한 부지 확보, 용수와 교통 등 안정적 기반시설(인프라), 인공지능(AI)·자동차·전력 등 풍부한 전후방산

의 이점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케이(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도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역량을 한 데 모아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의 강점을 활용,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광주·전남이 선도하는 한

편 지역균형발전의 근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원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를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정하고, 9월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와 12월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 2023년 전남형 안심 보육정책 본격 추진 보육정책위원회서 5개 안전 의결

전남도는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 5개의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23일 도청에서 개최하고 전남형 안심보육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가, 공익 대표, 보육교사, 학부모 등 15명이 참석해 2023년 전남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은 공공보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양육지원체계 구축,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7천 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이지만 전남도는 2020년부터 학부모 부담료 전액인 아동 1인 평균 9만 원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산림조합 광주전남,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200 여종 11만 그루...4월 말까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손철호)는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광주전남지역본부 내 1만4080㎡ 규모의 판매장에서는 200여 종, 11만 그루 유실수, 조경수, 조림용 수요와 잔디 등을 판매한다.

지역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고품질 우량 건전묘목들은 4월 말까지 판매된다.

가정에서 심기 좋은 매실, 대추, 감, 모과, 살구, 자두, 앵두나무 등의 유실수와 단풍나무, 금(은)목서, 주목, 반송, 산다화, 명자나무, 회양목 등 잎을 보는 관상수, 장미, 철쭉 목련, 라일락, 홍도화 등의 꽃나무류가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15개 지역 산림조합도 나무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철호 본부장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각종 입업, 조경자재 및 친환경 비료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남개발공,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ESG중심 경영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지방공기업(16개 시도 개발공사)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도입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및 ESG중심 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이 취임 후 경영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임직원 불법행위 근절,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토지거래·투기행위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16개 시도 개발공사) 중 최초로 설치하였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7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외부전문

가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임직원 도덕적 해이,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고 준법·ESG중심 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정렬하고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의 추구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위원들이 제한한 모든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이래 최대 매출...206억 달성

전년 대비 17.5% 증가...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실현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해 매출액 206억 원(예산 결산 기준)을 달성, 개관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이는 전년 매출액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대비해도 높은 실적이다.

영업손실 또한 전년 대비 1억7000만 원 개선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주의 단계로 마이스(MICE)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이 같은 성과는 더욱 값진 결과라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설명했다.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꿈과 즐거움이 있는 마이스 전당’이라는 신경영비전을 수립하고 신사업 개발·수익성 개선·경영체계 선진화·사회적가치 창출 등 4대 분야의 과제를 발

굴, 각 과제별 추진 사항을 수립해 신비전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전시장 가동율 55.1%로 전년 대비 14.4% 증가, 전시사업 매출액 전년 88억 원 대비 23% 증가한 109억 원 달성, 지역 혁신산업 연계 신규전시회 4건 개발 등 센터의 핵심 사업 실적이 고무 향상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신규 전시회 개발에서도 성과를 나타냈다. 주류페스타 등 총 4건의 행사를 신규로 개최하면서 13억 원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 성장 잠재력 또한 확인했다.

개관 18년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객 민원이 지속하자 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차로 바닥 카페트 교체, 영상 장비 고도화 등 총 34건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선했다.

이슬비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